

설화·전설·민담...나뭇결에 담긴 사람살이



한 쌍의 용이 떨어를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은 볼수록 신비롭다. 순천 송광사 천자암 곱향나무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나무를 심은 사람들

고규홍 지음

전북 진안 평지리에는 이팝나무 군이 있다. 평지리 마령초등학교 정문 곁으로 수령이 300년쯤 되는 이팝나무가 모여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아기무덤이 형성된 것은 이팝나무의 수령과 때를 같이한다. 조선 시대 흉년이 들면 가장 갓난아기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다. 어른은 주린 배를 움켜쥐고 버티면 되지만 아기들은 젖 한 방울 나오지 않은 어미의 입을 물고 있다 영양실조로 죽게 된다. 굶어 죽은 아이들을 위해 사람들은 쌀밥나무인 이팝나무를 심었다.

이곳의 이팝나무군은 봄이면 꽃대결을 이룬다. 슬픔의 전설을 간직한 채 피워 올린 꽃대결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애담의 상징이다. "아기야! 살아서 먹지 못한 쌀밥, 죽어서라도 실컷 먹어!" 오늘의 이팝나무는 아이들의 꿈을 지키는 풍요로운 표상이기도 하다.

"나무는 살아 있는 사람의 역사"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나무에는 이 땅에 살았던 이들의 수다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의미다. 나무인문학자 고규홍은 매일같이 나무를 찾으며 나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광주일보에 '고규홍의 나무생각'을 연재하고 있는 그는 천리포수목원 이사와 한림대-인하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최근에 펴낸 '나무를 심은 사람들'은 나무와 사람의 이야기다. "사람은 나무를 심고, 나무는 사람을 지켜주며 나무와 사람은 그렇게 이 땅에서 오랫동안 더불어 살아왔다. 돌아보면 나뭇결에 담긴 사람살이를 탐색하고, 나무를 심은 사람이 나무에 남긴 뜻을 살피는 것은 이 땅의 인문 역사를 탐구하는 일과 다를 게 없다."

책은 20년 동안 전국을 누비며 만났던 나무가 주체다. 저자는 책을 엮기 위해 사료는 물론이고 문중 문서, 전설, 민담 등 다양한 자료와 설화를 모았다. 이를 토대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었으며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았는지 들려준다. 임금부터 시작해 당대의 뛰어난 학자와 선비, 고승 대덕, 장삼이사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이 등장한다.

명문 '토함소적문'으로 알려진 최치원은 현실 정치와 세상에 얽음을 느껴 은둔을 자처했다. 합천 학사대 전나무(천연기념물 제541호)는 그의 지팡이가 썩어 돌은 나무라는 전설이 있다. 옥두품 출신이었던 그가 올린 개혁신안이 성공과 진골 출신 귀족들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자, 현실 정치를 떠나 은거를 결심한다. 해인사 요사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지팡이를 땅에 꽂은 거였다.

담양 면양정 숲에는 네 그루의 굴참나무가 있다. 정계를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송순이 정자를 짓고 심은 나무가 굴참나무다. 대나무나 소나무와



전북 진안군 평지리 이팝나무군에는 아이들의 꿈을 지키는 풍요로운 표상이 깃들어 있다. <휴머니스트 제공>

같은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가 아닌 흔한 굴참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따른다는 철학을 대변한다.

저자는 지금의 굴참나무 수령은 200년으로, 400년 전쯤 건립된 면양정을 보건대 송순이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그럼에도 "뚝뚝하게 자란 굴참나무는 세월의 풍상을 이겨내며 순리에 맞춰 살아가는 자연의 지혜를 웅변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나주 오씨 집성촌인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상구마을에는 숲이 조성돼 있다. 천연기념물 516호인 호랑가시나무는 노랑해전에서 이순신과 함께 싸웠던 이곳 출신 오득린에 심었다고 전해온다. 이순신은 흥탄에 맞은 후 조카인 완에게 "내가 죽었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득린에게 나를 대신해 군사를 지휘하게 하라"며 숨을 거뒀다. 그 정장에서 장애를 입은 오득린은 후일 고향으로 돌아와 팽나무, 느티나

무, 호랑가시나무 등 10여 그루 나무를 심었다. 거창의 연수사 은행나무는 수령이 600년이 넘는다. 이곳에는 고려 왕족과 혼인한 여인과 관련한 애잔한 전설이 내려온다. 아들을 낳았지만 고려가 패망하자 절에 숨어든 여인은, 스님의 권유로 아들을 불가에 귀의시킨다. 모자가 헤어질 때 아들은 전나무를, 어머니는 은행나무를 심었다. 후일 전나무는 죽고 은행나무만 살아남았는데, 가끔 "모정을 드러내듯 은행나무는 가끔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울었다"고 전해온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아마도 이것일 테다. '세상의 모든 삶은 나무와 더불어 이어졌고 나무를 통해 기억된다.' 오늘 심는 한 그루의 나무는 필경 역사가 되고 우리 삶의 필수과정이 될 것이다.

<휴머니스트·2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세상 끝 동물원

어피티 코나 지음, 유현경 옮김

아우슈비츠 소재의 작품은 긴장과 스릴을 준다. 인류사의 아픈 역사로 새겨진 아우슈비츠는 다양한 작품에서 새롭게 변주돼 왔다.

플란트게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성장한 어피티 코나가 장편 '세상 끝 동물원'을 펴냈다. 출간 즉시 전 세계 24개국에 판권이 팔리고 '뉴욕 타임스' 주목할 만한 책, '퍼블리셔스 위클리'와 '엘르' 등에 올해 최고의 책, '반스 & 노블'에 올해의 발견에 선정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소설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아우슈비츠의 동물원을 배경으로 한다. 1944년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열두 살 쌍둥이 펠과 스타사는 '동물원'이라는 막사에 보내진다. '의사 삼촌'으로 불리는 펠레는 사랑을 나눠주며 다정하게 대한다. 그에게 선택되면 가스실에서 죽음을 면할 뿐 아니라 수용소 내에서도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소문이 돈다.

그러나 펠레의 눈에 아이들은 단순히 생체실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고문과 학대가 빈번한 그곳에서 쌍둥이는 나름의 방식으로 적응해나간다. 스타사는 첫날부터 여러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며 대담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펠은 신중하게 수용소의 위계관계를 파악하며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을 기억하려 한다.

소설 전편에는 참혹한 시대의 악을 끝내 증언하고자 말겠다는 작가의 강렬한 목소리가 흐른다. 또한 잔혹한 순간에 피어나는 희망과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다.

한편 '뉴욕 타임스'는 "무엇보다 잊기 힘든 것은 아우슈비츠라는 지옥을 그리면서도 많은 수감자의 꺾이지 않는 마음을, 극도로 처참한 고통에 마주해서도 희망과 진실한 마음을 지키는 의지를 포착한 필력"이라고 평한다.

<문학동네·1만5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존 버거의 생애와 작업'

조슈아 스펠링 지음, 장호연 옮김

전후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의 한 사람으로 꼽혔던 존 버거. 지난 1972년 소설 'G'로 부커상을 수상했을 때, 버거는 상급 절반을 기부했다. 그는 예술가이면서 활동가로 노동자와 이주자 그리고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의 권리를 위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투쟁했던 혁명가였다.

존 버거가 세상을 떠난 지 3주기를 맞아 첫 평전이 출간됐다. 예일 대학교에서 비교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조슈아 스펠링이 쓴 '우리 시대의 작가-존 버거의 생애와 작업'은 좌파활동가였던 존 버거의 생애를 심도 있게 다룬다.

책 제목인 "우리 시대의 작가"라는 표현에서 보듯, 존 버거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썼다. 저자는 존 버거의 자료와 당대 사상적 조류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 한 편의 미학 교양서를 펴냈다. 책을 통해 20세기 중반에서 21세기의 이르는 문화사 논쟁의 트렌드를 가늠할 수 있다.

존 버거는 전쟁과 냉전, 68혁명, 신자유주의 등 격변의 시대를 관통했으며 예술이란, 특히 좋은 예술이란 어떤 것인지를 성찰하고 전착했다. 책은 문화와 사진,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를 넘나들며 시대마다 버거의 삶을 사로잡았던 질문을 던진다. 존 버거가 소설가와 시인, 비평가의 사유를 토대로 미술비평, 다큐멘터리 사진-텍스트, 모더니즘 소설 등을 선보였다. 아웃사이더에서 모더니스트로, 양심의 수호자로 이어진 존 버거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소설이자 드라마였다. 그럼에도 그의 글쓰기는 너그러웠다. 그가 사람들과 나누었던 수많은 글은 공간과 시간, 역사와 기억 등을 담은 한편의 사진에 다름아니었다.



<창비·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세습 중산층 사회

조귀동 지음

'90년대생 마케팅'이 사회 곳곳에 등장하면서 20-30대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취업 35일 만에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검찰 개혁이라는 키워드 못지않게 '90년대생'과 '불평등' 이슈가 떠올랐다.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울분이 잇따랐다. 반면 명문대 바깥에 자리한 20대 대다수는 시종일관 침묵하며 '남의 일'이라는 무기력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출간된 '세습 중산층 사회'는 '조국 대전'에서 나타난 중산층의 분노와 다수의 냉소로 20대가 양분된 현상을 그들이 경험하는 불평등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한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경제의 구조와 그 변화 과정에 대한 글을 써온 저자 조귀동은 젊은 세대가 불평등 구조의 위계 서열에서 자리하는 위치는, 그들의 부모가 어떤 계층에 속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 그들이 경험하는 불평등의 본질은 부모 세대인 50대 중산층이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을 그들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데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지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20대가 진입하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살펴봄과 2010년 이후 20대의 취업 과정과 취업 이후의 결혼, 출산, 부동산 등에서 나타나는 계층 분화 양상을 분석한다. 이어 교육 불평등 현실과 지방 소재 대학생, 고졸자의 상황도 담았다. 또 사회 계층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정치·사회·경제의식이 변화하는 모습이 다르며 이에 따른 의식 분화 양상을 설명한다.

<생각의힘·1만7000원>

/전은재 기자 ejf621@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